

자신을 믿고 한걸음 한걸음씩



신 유 진

- 정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 변호사 권순탁 법률사무소 근무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1년 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유진입니다.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며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계획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와 경영학과를 졸업한 비법학사이고, 민법, 형법 등 대부분의 법학 과목을 로스쿨에 입학해서 처음 접해보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없이 고군분투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첫 학기 학점은 3.3에서 졸업 학기에는 4.25점의 학점을 받을 수 있었고, 10월 모의고사까지는 객관식 점수가 80개에 머물렀으나, 변호사 시험에서는 120개 이상을 맞아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수험생활을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거친 과정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제 합격 수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I. 학교생활

1. 입학하기 전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학부 시절 헌법과 형법은 수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지만, 형법과 민법은 전혀 접해본 적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합격 발표 후, 민법 예습이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한다는 등의 핑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들이 다 하고 들어간다는 민법 1회독도 하지 못한 채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 민법 법조문을 한 번씩 써서 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민법 법전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리로스쿨에 참여하여 과목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로스쿨 입학 전에 1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좀 더 학교생활이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2. 1학년 - 기초를 쌓는 시기

(1) 1학기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 첫 학기에는 민법 총론, 형법총론, 채권각론, 헌법(기본권파트)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첫 학기여서 그런지 긴장도 되고, 과목별로 예습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를 바쁘게 살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는 강의를 따라가기 위하여, 예상 진도에 맞춰 인터넷 강의를 미리 들으면서 예습을 하여야 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수업 내용 복습을 한

다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았었습니다.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비는 공강 시간을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였고, 수업이 모두 다 끝난 저녁 시간 이후는 강의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책하러 가고, 동기들과 모임을 하기도 하며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평일에는 열람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특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까지 과목별로 기본서를 10회독은 해야겠다는 목표로(실제로 10회독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반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공부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고, 학부 시절 시험 준비를 하듯이, 단순히 다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답안지에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선배님께서 제가 기본서를 보면서 사례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길게 절대 시간 내에 쓰지 못한다. 이 많은 내용을 외워서 절대 못 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라도 공부 방법을 수정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기본서와 모범답안을 다 외우는 방법을 택하였고, 실제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변호사 시험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가고, 모의행정심판 대회 준비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도저히 벼락치기로 공부할 수 없는 과목이라는 것을 1학기 때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물권법 및 채권총론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미리 예습하였습니다.

(2) 2학기

2학기 때는 물권법, 채권총론, 형법각론, 헌법(통치구조), 법의학, 민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물권법과 채권총론은 민법총론, 채권각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고, 민사소송법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또 학기 내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예습하고, 수업 후에는 과목별로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험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과목별 사례집을 구매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또한, 시험 전에 쟁점별로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한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학기에 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나 무리해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이석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 갑자기 찾아온 이석증으로 인해서 앞으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2학년 때는 막상 민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민법 복습에 집중하였습니다. 1학년 때는 두꺼운 민법 기본서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책을 가지고 변호사시험장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좀 더 얇은 책으로 단권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석 변호사님의 교재를 택하였고, 위 책에 정리해 나갔습니다.

3. 2학년 - 수험생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

(1) 1학기

2학년이 되어서는 '정신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학생회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3월은 이런저런 행사 준비들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4월이 되어서야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는 민사소송법2, 형사소송법, 회사법1, 행정구제법, 민법세미나 등의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도 많았고, 쟁점별로 학설,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회사법은 적당한 부교재도 선정하지 못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교수님이 나눠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집을 풀면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준비를 위한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교재 하나를 정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좀 더 3학년 때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는 2주 동안 법원 실무수습을 다녀왔습니다. 실무수습을 하는 동안에는 과제 제출 및 출퇴근 준비 등으로 인하여 피곤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공부 시간을 마련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실무수습을 하면서 다음 학기에 배울 형사재판실무에서 작성하게 될 검토보고서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을 하며 만난 재판연구원 선배님들이 2학년 여름방학에는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형법각론 과목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고, 실무수습이 끝나자마자 위 과목들을 부랴부랴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학년 여름방학 때 신호진 형법강의를 완강하였고, 특별형법도 예습하였습니다.

(2) 2학기

2학기에는 형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선배님들로부터 형법은 이때 다 끝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 암기장도 구매하여 단권화 자료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실무 및 검찰실무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다 보니 막상 암기장에 단권화 자료를 만들 시간은 부족하였습니다. 위 과목들에서 나눠주는 판례 자료를 복습하고 암기하는 것 만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과제를 하다 보니 한 학기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꼭 재판연구원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형재실 과목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 정리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기록형 작성 연습도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변호사 시험 대비도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도 유효하였던 것 같습니다.

위 형법과목 외에도 헌법연습 및 회사법2 과목도 동시에 수강하였습니다. 형법을 완성해야 하는 학기라고는 하나, 다른 과목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업이라도 하나 더 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변호사 시험 준비 때 활용할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는 2학기 때 집중하지 못하였던 민법 공부에 다시 집중하였습니다.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을 스테디를 통해 한번 다 풀었고,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도 1회독을 하였습니다.

4. 3학년 - 완전한 수험생활

(1) 1학기

3학년을 앞두고 이제 진짜 변호사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단 변호사 시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지난 학기까지 열심히 공부한 형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과목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경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갑자기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열람실이 폐쇄되는 등 모든 환경이 뒤숭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3학년 수업은 거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법연습, 공법기록연습, 민사재판실무, 민사기록실무, 형사소송법연습, 상사판례 등의 수업을 수강하였고, 선택법 과목인 독점규제법 강의도 수강하였습니다. 20학점이나 수강하였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당시에는 힘들기는 했으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준비 과정에서 과목별로 진도에 맞춰서 쟁점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수강하면서 중요 민사 판례 및 최근 판례까지 자연스럽게 다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1학기 때 수강하지 못한 행정법 위주로 공부하였고, 최근 판례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님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최근 판례 특강 수업도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시험이 다 끝난 지금 느끼는 점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해주신 특강이 객관식 대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요 판례나 최근 판례를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주시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파악하는 데 용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름방학 기간에는 6월 모의고사와 8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실제 변호사 시험을 친다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아침에는 어떤 자료를 보는 것이 효과적일지, 정리한 암기장을 시험장에서 다 볼 수 있을 것인지 직접 실험해보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객관식 점수가 너무 처참하였기 때문에 좌절할 때도 많았으나, 반대로 긴장감을 끝까지 늦추지 않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2학기

2학기 때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집중을 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학점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학기 때 과목 영역별로 수업을 다 들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2학기 때도 민사기록실무, 행정소송실무, 재산범죄실무, 경제법연습을 수강하여 영역별로 한 과목씩 수강하였습니다.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난 뒤 변호사 시험 기간까지 약 한두 달 사이의 시간이 남았었는데 그 동안 과목별 비중을 고려하여 어떤 과목을 언제, 며칠 동안 볼 것인지 달력에 미리 계획을 다 세워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기간 동안 볼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회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어 놓았던 단권화

자료(암기장 + 개인 메모), 최근 판례 요약자료, 객관식 체크 문제, 기본서 요약자료 등을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때는 생활 방식도 최대한 단순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되지 못하여 9시 30분쯤 기상하고, 10시에 공부를 시작하고는 하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였고, 스터디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주로 방에서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가끔 집중되지 않으면 가까운 카페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넓은 오픈형 도서관에 가기도 하는 등 유연한 환경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동기들을 직접 만나기도 어려웠으므로 '열폼타'라는 어플을 활용하여 서로 공부 시간을 체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5. 변호사 시험 기간 동안

변호사 시험 이틀 전, 미리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구매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시험을 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담요와 핫팩 등을 넉넉하게 사 두었고, 오랜 시간 앉아있어야 할 것을 대비하여 방석 및 커블체어 등도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첫째 날 공법을 치고 나면 형법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미리 정리해둔 형사법 자료들을 일 회독 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 하루 전날에는 준비해뒀던 공법 암기장 요약자료, 객관식 요약자료, 최근 판례 요약자료, 6,8,10 모의고사 정리자료 등을 일회독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표 등 준비물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후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기간에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계획했던 모든 양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

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치면서 생소한 쟁점도 나오고, 쟁점을 찾지 못하고 잘못 쓴 내용도 있는 것만 같아 계속 다음 과목을 준비하면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세 차례 모의 고사를 치르면서 훈련했던 것을 생각하며, '뒤편 쓰자. 잘못 썼다고 해도 점수에 큰 영향 없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사히 마지막 날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험 성적표를 보고 느낀 것은 당시에는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망한 부분이 크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험 기간에는 이미 지나간 시험은 이미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 방법

1. 객관식

(1) 공부 방향

저는 3학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객관식은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유니온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과목별로 다 사놓기는 했으나 양이 너무 많아서 쉽게 풀 엄두도 나지 않았고, 그동안 사례형 및 기록형 준비에 정신이 없어 객관식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회차별 문제 풀이를 해야 한다.', '기본서를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최근 판례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엑스칼리버 등의 요약된 교재를 반복해서 봐야 한다.', 'OX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등 많은 학습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과목별로 진도별 문제집을 다 푸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키워드를 표시해가며 반복해서 읽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여기에 최근 판례를 보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진도별 문제집을 풀게 되면, 회독 수를 늘리면서 중복되는 선지는 지워나가면서 시험 전날 봐야 할 문제만 표시할 수도 있고, 문제 풀이 중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를 찾아보면서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반복 학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진도별 기출문제집의 요약서라고 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를 같이 보며, 제 나름의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기출문제에는 있었으나 엑스칼리버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고, 최근 판례의 중요한 키워드를 엑스칼리버에 채워나가기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단기간에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를 상승시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나, 고득점을 받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목표에 따라서 적당한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공 법

헌법의 경우 혼자서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풀고 키워드를 표시해나가다 보니 중요한 내용이 정리가 잘되지 않는 것 같아, 강성민 변호사님의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시는 유인물에 제가 유니온 문제집을 풀면서 정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십 번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통치구조론이나 헌법 개정 등은 모두 포기하거나 피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동할 때나 식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째깍이 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는 예상 밖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간단한 선지들이 많아,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셔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박도원 변호사님의 정지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교재가 작고 보기에 편리하므로 이동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회독 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진도별 문제집을 두세 번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시험에서 20문제 중 19문제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3) 형사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진도별 유니온 기출문제집만 계속하여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다행히, 3학년 2학기 때 수강한 '재산범죄실무'라는 과목의 기말고사 범위가 형법 전개년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최신판례를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형사법은 위 방법으로 충분히 고득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민사법

민법의 경우 기출문제집을 풀지는 않았습다. 민법은 아무리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출문제 분석은 가성비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연석 변호사님 강의를 따라가며 정리해둔 교재 회독 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시험에서 한 두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맞춰 민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법의 경우 기출문제집을 다 풀었고, 그 문제집을 3회 독 정도 하며 회독 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엑스칼리버에 정리도 하였으나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상법의 범위가 방대하고, 어음, 수표, 보험 등 깊게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상법의 경우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기본서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위 기출문제집 분석을 통한 공부가 효과가 있었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변호사 시험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미련하게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다 푸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었을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사이에서 생각보다 중복되는 문제도 많고, 중복되는 선지도 많으므로 회독을 늘릴수록 그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고,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다는 자신감 덕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크게 위축되지도 않았습다. 그리고 마지막에 객관식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세 번의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점수가 75개에서 85개 사이에 머무르다가 변호사 시험에서는 120개를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변호사 시험 발표일까지 여유롭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대한 객관식 준비를 어떻게

하지 미리부터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단 뭐라도 풀면서 부딪혀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례형

(1) 공부 방향

사례형은 1학년 때부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각자 개인의 요령이 다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과목별로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판례 문구 등을 정리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판례마다 이 표현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표시해 두었고, 어떤 쟁점이 문제로 나오면, 어떤 목차로 글을 쓸 것인지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스테디를 꾸준히 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하였습니다.

(2) 공법

공법은 출제 방식에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으므로 쟁점별로 목차를 미리 구상해두고, 그 틀에 맞춰서 반복 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 연습 등의 수업을 수강하며, 교수님이 나눠주신 목차대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에는 스테디를 구성하여 시간을 맞춰 한 시간씩 헌법과 행정법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암기장 정리를 마쳤습니다. 학교 수업 및 인터넷 강의, 스테디를 활용하여 암기장 정리를 마쳤고, 덕분에 변호사 시험 전까지 이 자료만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 출제 비중이 높으므로 가능하다면 최신판례의 전문을 읽고 논거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사안에서 이 판례가 나왔던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2) 형사법

형법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쟁점을 뽑아내는 방법을 반복하여 연습하였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형법 과목을 몰아 수강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정리해뒀던 자료를 계속 활용하여 최신판례를 보충하였고, 쟁점별로 학설, 판례의 태도 등을 미리 다 정리해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나오는 쟁점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불의타에 대비하여 형사소송법 뒷부분의 주요 쟁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까먹지 않기 위해 읽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형사소송법연습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였었는데, 교수님께서 사법고시 문제 중에서 변호사 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를 골라서 문제 풀이를 해주신 덕분에 예상 밖의 문제에도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민사법

민법은 문제를 보고 어떤 판례가 적용될만한 사안인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사안에서 이 판례가 나왔는지 항상 기억하려고 하였고, 그 사안이 나오면 꼭 써야 하는 문장을 두 문자를 활용하여 암기해두었습니다. 특히, 민재실 수업시간에 배운 판례는 변호사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위 판례 자료들을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처럼 문제를 보고 바로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학설, 판례, 검토를 순서대로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안을 풍부하게 포섭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수강한 민사소송법 연습과목을 통해서 내용을 정

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법의 경우,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므로 일단 중요 쟁점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외의 어음·수표법 등의 경우에는 인제 와서 공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암기장에 있는 내용만 외우고 조문이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알게 공부한 탓인지 10회 변호사 시험을 치르면서 '왜 이렇게 올해는 불의타 문제가 많이 나오는가'하며 한탄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늘 연습해왔던 대로 '조문, 학설, 판례,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목차에 맞춰서 맞든 안 맞든 뭐라도 채워 넣고자 하였고, 그 결과 합격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상법 기본서를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다라면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4) 선택법

저는 경제법을 선택하였는데, 3학년 때 처음 선택법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수강하였고, 교수님 수업자료를 주 교재로 삼았으며, 학교 선배님께서 정리하신 자료를 통해 단권화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보다는 점심을 먹을 때나 저녁 식사를 할 때, 또는 공부를 하기 싫을 때 선택법 요약자료를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칠 때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았지만, 선택법도 응시하였고, 시험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등의 법조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5) 결론

1학년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

면서 단권화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쟁점별로 '논점 - 학설 - 판례의 태도 - 검토'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쁜 메모지나 노트에 정리해두었는데, 나중에 되어서는 그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3학년이 되어서 과목별로 암기장을 다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쟁점별로 제가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다 보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형만큼은 갑작스럽게 성적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1학년 때부터 늘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기록형

기록형은 3학년 수업을 통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 사례형과 큰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쟁점을 찾아내는 방법 및 문제 풀이의 스킬이 조금씩은 달라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직접 연습하고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은 경우에는 매주 과제로 기출문제 하나씩 써서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직접 써본 것이 시험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의 경우, 일반론을 어느 정도 적어두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에 과제를 하면서 어떤 쟁점이 나왔을 때, 얼마큼의 분량으로 쓸 것인지 대략 정리해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제를 하면서 해당 연도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다 정리할 수 있었으므로 변호사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를 복습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법은 형재실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학년 2학기 때 수업을 들으면

서 기록 보는 법을 충분히 연습해 두면, 변호사 시험 대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3학년 2학기 때, 스터디를 통해서 매주 기출문제 1회씩 풀면서 쟁점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민사법은 생각 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일단,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정연석 강사님의 청구취지 연습문제를 스터디원들과 꾸준히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재실 수업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요건사실 및 항변, 재항변 구조로 쓰는 방법을 연습하였습니다. 3학년 때 민사기록실무 1,2 수업을 모두 수강하면서 기출문제도 계속해서 풀고 교수님의 첨삭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록형은 그 틀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으므로 실제로 기록을 보고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막상 답안지를 쓸 때는 귀찮았지만, 매주 연습한 덕분에 기록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V. 그 외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이것만은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와 스트레스 해소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힘들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근교에 바깥 공기도 쫓러 가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쉬는 날에도 매일매일 조

금이라도 빠짐없이 책을 읽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어느 시점에는 이 정도는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어느 정도는 막연한 계획을 세우고 유연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편,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주 2회 이상 필라테스를 하면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자세 교정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조금만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조금씩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숨 쉴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V. 마치며

합격 수기를 작성하다 보니 이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며, 후회가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불안함이 들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이 과목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험 몇 달 전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 '교재는 2학년 때 모두 정해 두어야 한다.'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과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선택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그 공부 방법에 확신을 두고, 꾸준히 해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